

강원도 지형에 관한 연구동향과 과제

김창환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지리교육전공 교수

1. 서론

1) 연구목적

1945년 이래 한국 지형학의 연구 성과는 질적·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지형학은 지표의 기복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과학이다. 원래 자연지리학의 한 분야로서 발달해 온 관계로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지형에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하나의 산이나 끝짜기는 지형이고, 경관은 이러한 지형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여행을 할 때 우리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경관도 대부분은 이러한 지형이다.

이러한 지형에 관한 연구는 그 지형의 형성원인, 발달과정, 인간생활과의 관계 등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한반도 지형의 형성원인과 발달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지형의 연구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강원도 지형이 한반도 지형연구의 메카라고도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원도와 관련된 지형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강원도 지형학 정립을 위해 지금까지의 연구를 체계화하고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발표된 지형학 논문 중에서 강원도와 관련된 것을 추출하여 지형별, 지역별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지금까지 발표된 지형학 논문 중에서 강원도와 관련된 것을 추출하여 지형별,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있어서 논문선정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대한지리학회지, 지리학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와 지형학 연구 전문 학술지인 한국지형학회지에 게재된 한국 지리학자의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성과의 분석대상 연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리학 학술잡지 대한지리학회지(구명지리학) 창간호가 발간된 1963년부터 2001년 8월까지이다.

2. 우리 나라의 지형 연구 동향

1963년부터 발간된 대한지리학회지(지리학)는 2001년 8월까지 총 503편의 지리학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 중 인문지리학이 323편(64%), 자연지리학이 118편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자연지리학 분야가 인문지리학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한지리학회지에 발표된 자연지리 논문 중 지형학 관련 논문은 총 67편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이는 매년 평균 1.8편 정도가 학회지에 게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회지명	분야		인문지리학		자연지리학		지리교육		기타		총계		
	대한지리학회지	지리학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한국지형학회지	총계	626	23%	28	6%	34	7%	503	100%
대한지리학회지	323	64%	118	23%	231	61%	84	22%	42	11%	25	6%	
지리학연구	72	60%	24	20%	72	60%	50	96%	9	7%	15	1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9	8%	2	4%	
한국지형학회지	총계	626	59%	276	26%	79	8%	76	7%	1057	100%	52	100%

<표 1> 학회지별 각 연구 분야의 논문 편수 및 비율

학회지명	지형학 논문 편수	비율(%)
대한지리학회지	67	13.3
지리학연구	74	19.4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	9.2
한국지형학회지	50	96.0
총계	201	19.0

<표 2> 학회지별 지형학 논문 편수와 그 비율

“지리학연구”는 한국지리교육학회에서 1973년 창간호를 발표한 학회지이다. 지난 28년간 “지리학연구”에 발표된 논문은 총 382편으로 매년 평균 13.6편이 발표되었다. 그 중 지형학 분야의 논문은 74편으로 1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매년 평균 2.6편 정도가 학회지에 게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술한 대한지리학회지보다는 그 발표 비율이 높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지역지리학회지”는 한국지역지리학회에서 1995년 창간호를 발표한 학회지이다. 지난 7년간 학회지를 통해 발표된 논문은 총 120편으로 매년 평균 17.1편이 발표되었다. 그 중 지형학 분야의 논문은 11편으로 전체 논문의 9%에 불과하면 매년 평균 1.6편 정도가 발표되고 있다. 학회지가 1년에 4번 발간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적은 수치라 아니할 수 없다.

“한국지형학회지”는 한국지형학회에서 1994년 창간호를 발표한 학회지이다. 지난 8년간 학회지를 통해 발표된 논문은 총 52편으로 대부분(50편)이 지형학 논문이며, 나머지 2편은 기타로 분류되는 분야이다. 지형학 전문 학회지인 “한국지형학회지”에는 매년 평균 6.7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2) 강원도 지역의 지형 연구

전술한 바와 한반도 지형의 형성원인과 발달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지형의 연구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강원도 지형이 한반도 지형연구의 메카라고도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강원도와 관련된 지형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설정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강원학”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강원도 지형학 정립을 위해 지금까지의 연구를 체계화하고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강원도 지역에서의 지형 연구와 관련된 논문 편수 및 비율은 <표. 3>과 같다.

즉, 대한지리학회지에서 발표된 지형학 관련 논문 67편 중에서 강원도 지역 관련 논문은 14편으로 20.89%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인 규모로 본다면 비교적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된다. 지리학연구의 경우에는 총 74편의 지형학 논문 중 13편(17.6%)이 강원도 지형과 관련된 논문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한국지역지리학회지에서 발표된 11편의 지형 논문 중 강원도와 관련된 지형 연구는 전혀 없어 지역연구의 불균등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형학 전문 학술지인 한국지형학회지는 49편의 논문 중 9편이 강원도와 관련되어 있어, 18.4%의 연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회지명	지형학 관련 계재 논문 편수	강원도 지역 관련 논문 편수(%)
대한지리학회지	67	14(20.89)
지리학연구	74	13(17.6)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	0(0.0)
한국지형학회지	49	9(18.4)
총계	201	36(17.9)

<표 3> 학회지별 강원도 지형 연구 논문편수 및 비율

학회지명 행정구역	대한지리학회지	지리학연구	한국지형학회지	한국지역지리 학회지	계
강원도전체	3	1	.	.	4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2	1	1	.	4
강릉시	3	2	1	.	6
속초시	.	1	.	.	1
삼척시	2	1	2	.	5
태백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1	.	.	1
홍천군	1	.	.	.	1
횡성군
평창군	3	7	2	.	12
정선군	2	4	6	.	12
영월군	1	6	6	.	13
철원군

<표 4> 학회지별 강원도 지형연구의 지역별 분포

학회지명 분야	대한지리학회지	지리학연구	한국지형학회지	한국지역지리 학회지	계
풍화지형	2	2	4	.	8
하천지형	6	4	3	.	13
침식지형	.	5	.	.	5
카르스트지형	1	.	.	.	1
주방하지형
해안지형	3	.	.	.	3
구조지형	2	2	2	.	6
화산지형

<표 5> 학회지별 강원도 지형연구 분야

한편, 강원도 지형연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하천지형과 카르스트 지형이 모식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평창군·정선군·영월군 지역이 가장 많이 조사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동해시·강릉시 등 주로 영동 지방이 지형 연구 대상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영서 지방의 경우 춘천·원주를 비롯하여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형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강원도 지형연구의 분야는 지역별 분포와 관련하여 하천지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풍화지형, 구조지형 순으로 조사되었다. 카르스트 지형이 1편의 논문 밖에 없다는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며, 주빙하지형과 철원의 화산지형에 관해서는 4대 학회지에서 발표된 논문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3. 결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 발표된 4대 학회지에 게재된 지형학 논문 중에서 강원도와 관련된 것을 추출하여 지형별, 지역별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대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이 총 1057편으로 그 중에서 지형학 논문은 49편으로 전체의 19.0%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지형학 논문 중에서 강원도 지역 관련의 논문은 36편으로 지형학 논문 전체의 17.9%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조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강원도 지형연구의 지역별 분포와 분야를 살펴보면 평창·정선·영월 그리고 하천지형·풍화지형 등에 집중되어 연구의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자연환경의 중요성 특히, 지형환경의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지형연구의 비다양성으로 인해 컨텐츠에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물론, 본 연구를 통해 정리된 결과는 4대 학회지에 국한된 것이며, 지형학 관련 석·박사학위논문과 각 대학에서 출간되는 학술지를 더 분석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강승삼, 1983, 지형학 연구성과에 대한 제의문, *지리학연구*, 8, 한국지리교육학회.
김창환·정장호, 1994, 지형학의 과제와 가능성 모색, *지리학연구*, 24, 한국지리교육학회.
박노식·박동원, 1976, 지형학, *지리학*, 13, 대한지리학회.
박동원, 1979, 신지형학-방법론과 문제점, *지리학과 지리교육*, 9, 서울대 지리교육과.
오경섭, 1996, 한국 지형학의 50년 회고와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31-2, 대한지리학회.